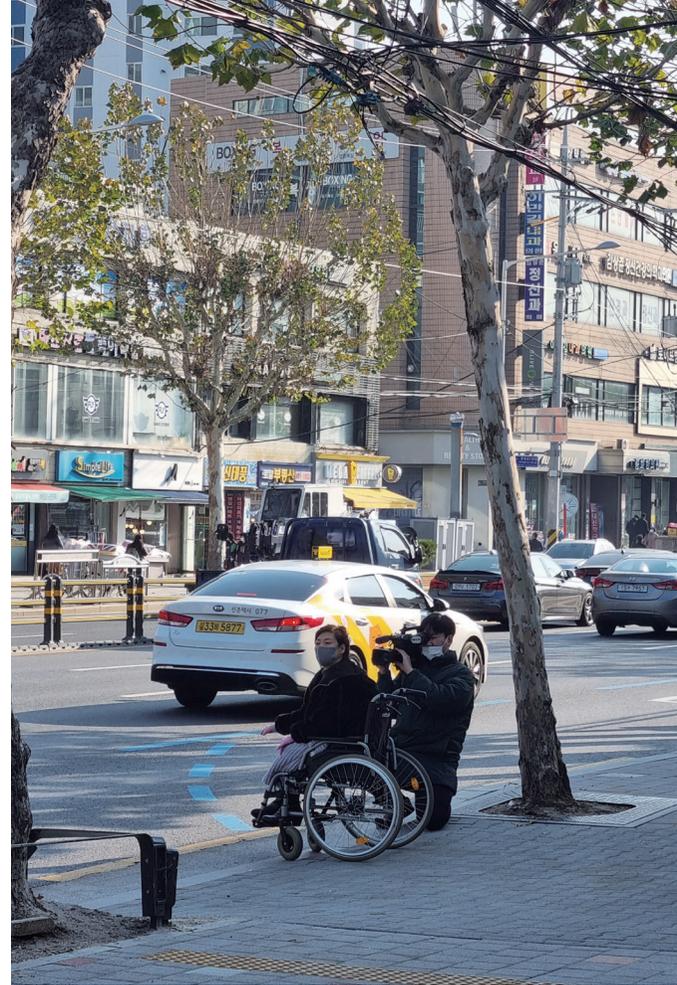


‘망각의 강’에서 되돌아오는 법



일반 택시를 잡아보는 지숙 샘. 혼자가 된 지숙 샘 앞에서 차를 세우는 택시는 거의 없었다.

2021년 12월14일, 나는 중증장애인 지숙 샘(56세)과 1박 2일 동행 르포를 시작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살필 생각이었다.

르포 둘째 날, 지숙 샘과 함께 지하철을 타려는데 중학생 때 처음으로 아빠와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아빠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하철이 역 안으로 들어서고 자동문이 열리자 한 발 한 발 천천히 들어갔다. 그때 누군가 아빠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재빨리 일어났지만, 아빠는 손사래를 쳤다. 손잡이와 안전바를 꼭 잡으면서도 아빠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하철 이곳저곳을 휘둘러봤다.

“아빠 젊었을 때 타보고 처음이네. 이야 이런 날이 다 오네.”

아빠는 상이용사다. 20대 때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 왼쪽 다리를 대부분 잃었다. 나는 원래 아빠들은 천천히 걷고, 수영장에 가도 벤치에 앉아 손만 흔들어 주는 줄 알았다. 비가 오면 회사에 가지 않는 것 역시 다른 아빠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내가 점점 자라 아빠 의족보다 키가 커졌을 때, 나는 아빠가 비가 오면 다리 통증 때문에 회사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만큼은 엄마도 아빠가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을 헤아렸다.

내가 아빠 모습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던 건, 아빠의 일상생활이 다른 아빠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침이면 양복을 입고 차를 운전해 회사로 출근했다. 오후 6시가 지나면 아파트 주차장으로

아빠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나는 엄마와 함께 마중을 나가 아빠가 우릴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중학생이 되어서 지하철을 아빠와 처음 탈 때까지 나는 '아빠는 차가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내게 대중교통은 차가 없는 사람들이 타는 수단엔 불과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뉴스를 처음 봤을 땐 내심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어느새 망각 속으로 쉽게 휘발됐다. 아빠는 그날 이후로 지하철을 탄 적이 없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지하철 타기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오후 1시에 도착하려면 지금 차를 불러야 해요."

지속 샘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공공일자리 근로를 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작년 여름 지속 샘과 인연을 맺은 나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기획 발제를 하면서 처음 그녀의 집을 찾았다.

지속 샘은 선천적인 장애인이다. 두 다리로 서지 못한다. 손으로 바닥을



퇴근 무렵, 승차 수요가 몰리면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1시간을 넘어섰다.

'공포의 구간'이라는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 2번 출구 앞. 경사지고 울퉁불퉁한 인도 탓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기 일쑤다.

짚고 골반에 힘을 줘야 간신히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 화장대도 커피 주전자도 식탁도 지속 샘 앉은키 높이에 맞춰져 있었다. 그렇게 샘이 타준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렸다.

지속 샘의 집은 센터까지 차로 15분 거리다. 오후 1시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오전 11시에는 택시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출근길에는 택시 수요가 몰려서 미리 부르지 않으면 회사에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택시를 부르고 30분쯤 지나자 차가 잡혔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빨리 잡힌 편"이라고 했다.

"그냥 일반 택시를 타면 되지 않나? 카카오택시는 어디든 오던데?"

처음 장애인과의 동행 르포를 발제했을 때 여러 명에게 받은 질문이다. 사실 나도 궁금했다. 지속 샘은 일반 택시를 잡고 싶어도 자신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대로변을 향해 눈에 띄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휠체어를 탄 지속 샘만 대로변에 남아 택시를 잡았다. '어라?'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택시 한 대가 잡혔다. 이어지는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원사 선생님 없이 지속 샘 혼자

한번 잡아보실래요?"

문득, '성인 남성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 택시 기사들에게 휠체어 승객을 탑승시키는 부담을 낮췄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대로변에는 지속 샘 혼자만 남았다. 지속 샘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활동지원사와 취재진 모두 언제든 달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실험을 이어 나갔다.

예상이 적중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빈 차' 표시 등이 켜진 택시가 여러 대 지나갔지만, 단 한 대도 서지 않았다. 혹시 보지 못한 걸까, 지속 샘이 자신을 지나치는 택시를 향해 강하게 팔을 흔

들어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오죽하면 지숙 쌤이 화가 나 택시를 향해 응징하겠다는 뜻의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촬영 기자의 제안으로 리포트에 담겼다.

“택시를 태워드리고 싶지만,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요.”

십여 대쯤 택시를 보냈는데, 드디어 차 한 대가 지숙 쌤 앞에 섰다. 택시 기사가 조수석 창문을 내려 지숙 쌤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일단 타세요.” 기사의 말이 지숙 쌤 옷 안에 넣어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됐다. 운전석에서 내려 지숙 쌤 쪽으로 걸어가는 기사를 향해 우리도 달려갔다. 과거 MBC 예능프로그램 ‘양심냉장고’에서 정지선을 지킨 첫 시민을 발견한 제작진 기분이 그랬을까.

어디선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튀어나온 취재진을 보고 기사도 몹시 당황했던 것 같다. 기사는 당신이 휠체어 승객을 태우려고 처음 차를 멈춘 분이라는 얘기에 속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다른 기사들도 어차피 승객을 태울 수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택시 트렁크에는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거든요.”

트렁크 안쪽에 자리를 차지한 검은색 LPG 가스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실제로 수동 휠체어는 접어도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그건 기사 책임이에요.” 기사가 말했다. 지숙 쌤을 지나쳐간 택시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오후 6시 지숙 쌤의 퇴근 시간. 장애인 콜택시는 출근 때와는 달리 1시간 반 뒤에야 잡혔다. 지숙 쌤은 15분 거리의 집을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도착했다. 평소보다 더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그녀에게 또다시 인터뷰를 요청할 순 없었다.

이튿날, 지숙 쌤을 다시 만나 지하철과 버스를 타러 갔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입구와 출구 방향이 다르니 안에서 휠체어를 돌리라고 적힌 안내문부터, 휠체어 승객의 눈높이에선 너무 높아 잘 보이지 않는 버스 노선도까지. 황당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였구나.’

이틀간의 동행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아파 생각이 났다. 아 빠는 적어도 오른쪽 다리만큼은 멀쩡했기에 차를 몰 수 있었다. 직접 차를 운전할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버스가 계단을 올라서야만 탑승할 수 있다.

수 없는 장애인들은 출퇴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서야 알았다.

‘상대방도 실점은 언제든 할 수 있다! 꼼꼼히 Catch!’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한 문건이 올라왔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25페이지짜리 PPT 파일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혐오적인 시각이 묻어났다.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싸워 이길 상대’로 규정하고, 시위 과정에서 상대의 실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부각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는 내용이였다.

나 역시 지하철 시위를 하는 5호선에 간헐 생중계를 날릴 뻔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과 현장 직원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차원에서 시위에 대한 여론전을 펼친 것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언플용(언론플레이용)으로 좋다’는 등 눈을 의심하게 되는 문장들이 많았다.

“서울교통공사 ‘시민 불편’ 프레임 받아쓴 언론, 책임질 수 있는가”

YTN의 문건 단독보도 이후 많은 언론 매체들이 문건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갔다. 가장 와 닿았던 건 이런 제목을



지속 샘과 YTN 취재기자 황보혜경, YTN 촬영기자 정태우, 지속 샘을 돕는 활동지원사 선생님 모습까지 사진 속에 담겼다.

달았던 <미디어오늘> 기사였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단체가 끼친 시민 불편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는 <문건>에 나타난 '장애인 단체 실점' 사례 내용과 같았다. 언론 상당수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YTN 보도가 나간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내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응원하는 건, 언젠간 나도 그 혜택을 보게 되지 몰라셔야.”

나중에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져 걷는 게 힘들 텐데, 지금부터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벌써 꼬부랑 할머니 될 걱정을 하는 친구 얘기에 웃음이 나면서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동권 시위를 옹호하는 일은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장애인 시위는 유아차를 끈 부모,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위이기도 하다. 그 수혜자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 일 수 있다.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 93.6%, 저상버스 도입률 59.8%’ 올해 2월 기준 수치다. 서울시는 앞으로 2~3년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2022. 3. 제작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전장연 여론전' 문건.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에 이 수치를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상버스 '도입 불가' 판정을 받은 노선은 62개나 된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 대수는 181대다. 하지만 운전 인력이 부족해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운행하지 못한 차량 대수는 34대다.

장애인 아빠가 곁에 있는 나조차도 장애인의 어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번 취재에서 얻은 깨달음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다.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나의 바쁜 삶이, 나 중심의 사유가 그런 결심을 '망각의 강' 너머로 흐르게 한 것이다.

지속 샘은 오늘도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동했다.

과연 나는 지속 샘의 고된 하루를 '망각의 강'에서 계속 구해낼 수 있을까. 🙏